

가족의 성격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 여성을 중심으로 —

金 惠 淑*

— 목 차 —

- I. 서 론
- II. 제주도 가족의 성격
 - 1. 가족유형
 - 2. 부부관계
 - 3. 고부관계
- III. 의식구조
 - 1. 개인의식과 가족공동체 의식
 - 2. 여성의 특질
- IV. 결 론

I. 서 론

한 단위의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회는 또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해당 집단만이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한 특성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의식구조의 총체적 모습이라고 우선 가정해 볼 수 있다. 인간은 누구든지 사회조직의 일원으로서 그가 속한 사회의 철학이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의식구조를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사회의 지연환경, 역사, 사상, 문화, 관습, 교양적 수준 등 여러 부분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고 종합되어진 연후에 의식구조에 대한 이해와 해명이 이루어져야

*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의식구조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어져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생활 등 집단생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는 우선 가족집단이나 친족집단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인간이 이와 같이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에 가족을 통해 사회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가족제도나 가족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의식구조의 파악도, 지역사회 전체의 공통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제주도 가족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해 내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식과 가족공동체 의식 그리고 여성의 특질 등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한다.

제주도의 가족형태는 단순히 지리적 역사적인 여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육지부의 전통적인 가족과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에는 제주인의 의식구조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려는 것이 이 연구에 임하는 기본적 전제가 된다. 더우기 가족의 권력구조를 통해 볼 때 제주도 여성의 의식구조가 육지 전통 가족 내의 여성들에 비해 상당히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가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미 제언한 바 있다.¹⁾ 이 연구는 이러한 여성연구와도 일련의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특히 여성들의 의식구조에 중점을 두어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의식구조의 추출 범위를 가족의 특성에 제한한다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가족의 성격조차 그 전모가 종합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필자가 그동안에 파악한 몇 가지의 측면만을 토대로 본 테마에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방적이고 단면적인 해명에 그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그 試論的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필자 자신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점이면서 동시에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와 제주인에 대해 애정 어린 눈으로 보고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반면, 그 때문에 냉정한 분석을 못하거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 우려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가 실제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거나 은폐 또는 편견이 개재될 가능성을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II. 제주도 가족의 성격

1. 가족유형

1) 拙稿, “濟州市 家庭의 夫婦間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83, pp.24~25.

제주도의 경우 가족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그 유형이나 포괄되는 범주가 현저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 울타리 내의 안·밖거리에서 父가족과 함께 혼인한 子가족이 생활하면서도 대개의 경우 두 가족은 생산·소비·취사를 분리하여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연로해져 노동력이 상실되더라도 농토의 소유권을 부모가 가진 채 경작은 아들부부가 담당하는 일이 많다. 그 때에도 농토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의 일부는 부모가 별도로 관리한다. 그러므로 소비생활이나 취사도 따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이와 같이 한 울타리 내에서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분리하면서도, 두 가족이 정서적 의식적 측면에서는 모두 한 가족으로 여기며 부락사회에서도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경우 가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가족유형이나 가족수의 범위는 크게 두 갈래로 파악될 수 있다. 첫째는 주거를 그 구분 단위로 본다면 직계가족으로서 1가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부부가족으로서 2가족으로 분류해도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두 가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제주도 가족의 특성을 보다 온당하게 드러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설사 장남이라 하더라도 그가 혼인하면 부모와 동거하기 보다는 즉시 살림을 따로 내는 것이 보편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다. 한 울타리 내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 안·밖거리에 정지(부엌)와 고팡(庫房)을 모두 설치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동일 울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식면에서나 정서관계에 있어서는 한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쉽게 마련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지와 고팡이 안·밖거리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두 가족집단 사이에 경제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기도 하여 실생활의 측면에서는 두 개의 가족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제주도인들은 아들이 결혼하여 살림을 따로 낼 때 ‘술가른다’는 표현을 쓴다. 이는 우선 취사할 곳을 새롭게 따로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표현의 진정한 뜻은 경제단위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제주도의 특상상 가족유형의 결정은 공동취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조사 대상지인 H부락 전체의 가족유형을 경제단위로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²⁾

위의 표에서 보면, 1인가족(34.1%, 60사례), 부부가족(56.2%, 99사례), 직계가족(7.4%, 13사례), 기타가족(2.3%, 4사례)으로서 전체 176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핵가족으로 볼 수 있는 1인 가족과 부부가족을 합친 결과 90.3%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핵가족 형태를 제외한 직계가족이나 기타가족은 전체 가족유형의 1할도 채 안되어 지극히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직계가족도 육지부 전통가족에서의 완성된 직계가족 유형과는 그 형태나 구성내용이 전혀 다르다. 전통가족에서는 대체로 부모들이 노동력이 있고 연로하지 않더라도 직계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부모가 연로하여 노동력이 거의 상실된 후이거나 또는 부모의

2) 拙稿, “濟州島의 一人家族 研究”, 「論文集」 제20집, 제주대학교, 1985, (조사 대상지: 북제주군 H부락, 조사대상가족: 부락 전체의 176가족중 一人家族 60사례).

〈표 1〉 가족 유형

| | 본인조사(제주 서부 H부락) | 제주 동부 S 부락 | 전국 郡部 | 전국 市部 | 서울 |
|-------|--------------------|---------------|-------|-------|------|
| 1인가족 | 34.1(60) | 9.5 | 4.1 | 8.0 | 9.8 |
| 부부가족 | 56.2(99) | 76.8 | 67.4 | 74.3 | 75.9 |
| 직계가족 | 7.4(13) | 13.7 | 27.8 | 14.2 | 9.5 |
| 방계가족 | - | - | 0.5 | 0.3 | 0.3 |
| 과도적가족 | - | - | 0.2 | 3.3 | 4.4 |
| 기 타 | 2.3(4) | - | - | - | - |
| 계 | 100.0(176) | 100.0(168) | 100.0 | 100.1 | 99.9 |

비고 : ① 본인조사의 기타가족은 여가구주+시조카 1명(1사례), 여가구주+친정모(2사례), 부부가족+장모(1사례)임.

② 동부 S부락 : 崔在錫,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p.51.

전국군부, 전국시부, 서울 : 崔在錫,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1982, p.22.

③ 괄호안은 實數임.

어느 일방, 특히 모친이 사망해서 더 이상 취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져야 직계가족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거동이 가능하고 노동력이 있는한 아들가족의 동거 제의를 거절하게 된다. 여기서 동거란 공동취사와 경제단위의 일원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1인가족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제주도의 핵가족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조사 대상지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가족 역시 경제를 단위로 조사한 제주도 동부 S부락보다도 그 비율이 월등히 높다. 그래서 이들 1인가족 60사례를 거주단위별로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자가족과 함께 동일 울타리 내의 안·밖거리에서 거주하는 것이 10사례였고, 나머지는 동일부락이나 타부락 등에 떨어져 살고 있었다. 거주를 단위로 분석해 보아도 50사례(전체의 28.4%)가 1인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동부 S부락의 1인가족 분포 비율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제주도의 전반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H부락과 같은 결과가 보편적인지 단정짓기는 어렵다.³⁾ 그러나 양 지역 모두 연로한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들 1인가족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이다. 조사 대상지 1인가족들의 평균연령은 71.8세의 고령이었으며, 심지어 남자노인들까지 취사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분리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었다.

3) 제주도 가족의 지역간 차이와 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조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창기는 제주도 가구의 크기(李昌基, “濟州島 家口の 크기”,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7, p.195)에 있어서 제주도의 서쪽 지역과 동·남쪽 지역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松本誠一도 제주도 동서의 지역성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민속지적 연구의 검토, 인구의동의 역사적 분석이 과제시 되어야 함을 제언한 바 있다. (松本誠一·秦思淑, “濟州島家族의 檢討 - 世代規模의 東西差 -”, 「탐라문화」 제11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1, pp.186~187.

아들부부가 동일 부락내에 거주하여 노령의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모시려고 해도, 그들은 독립생활을 고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가족은 현실적으로 핵가족이 절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 유형의 측면에서도 이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핵가족은 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현상 즉 분업화가 촉진되면서, 근대 이후 출현한 서구적 의미에서의 핵가족(Nuclear Family)과는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다른 것이다. 근대화 이전부터 서구로부터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영향도 수용한 적이 없이 제주도라는 특이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온 핵가족 형태인 것이다.

2. 부부관계

앞의 가족유형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주도의 가족은 부부가족제를 취함으로써, 예로부터 그 생활중심이 부부에게 집중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도 부부간 의사결정권의 향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부부간의 결정권은 다음 <표 2>와 같이 어느 일방에 편중되지 않고 대체로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의사결정권으로 본 가족유형⁴⁾

| | 서 울 (최재석, 1971) | 제주참수가족 (최재석, 1975) | 제주농·어촌 (본인조사, 1982) | 제 주 시 (본인조사, 1982) |
|-------|--------------------|-----------------------|------------------------|-----------------------|
| 남편우위형 | 6.8 | 11.1 | 6.4 | 6.1 |
| 일 치 형 | 24.9 | 23.5 | 32.4 | 43.9 |
| 자 울 형 | 67.1 | 56.8 | 56.2 | 43.3 |
| 부인우위형 | 1.2 | 8.6 | 5.0 | 6.7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위의 표에서 보듯이 부부간에 결정권은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쪽이 특별히 우세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골고루 분포되는 일치형과 자율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제주 농어촌에서는 부부간에 어느 정도 영역별로 선이 그어져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이 뚜렷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남녀의 구분 의식이 엄존하는 보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의 역할에 속하는 영역에 대한 자율결정권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반면에 여성의

4) 拙稿, “夫婦間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20-3, 1982. (조사대상지: 애월읍 광명리, 한경면 신창리, 조사대상: 299가족).

—, 전개논문(1983), (조사대상지: 외도동을 제외한 세주시 5개 동, 조사대상: 358가족)

영역에 대해서는 여성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유형을 자율형 (Autonomic type) 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율형 다음으로 일반적인 형태는, 대부분의 일을 부부가 공동으로 의논하여 결정하는 일치형 (Syncretic type) 이 있다. 조사결과 자율형에 비해서 일치형 가족이 낮은 비율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육지 농촌은 물론 서울의 일치형 가족보다는 훨씬 많은 편이다.⁵⁾

제주시의 가정만을 조사했을 때는 일치형과 자율형 가족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또한 자율형의 비율이 농·어촌보다 훨씬 낮고, 일치형은 반대로 아주 많다. 따라서 농어촌 가정보다 제주시의 경우가 보다 민주적 성격을 나타내는 부부 공동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는 근대화된 도시로서 제주시의 한 단면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남편의 권력이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산업화의 추세와 병행하여 그 결정권의 일부가 부인에게 자연스럽게 이양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는 자율형과 일치형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타지역에 비해 제주도의 가정이 보다 민주적이며 타협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다.

한편 남편의 의사결정권이 지배적으로 운용되는 남편우위형 (Husband-dominant type) 이나 그 반대인 부인우위형 (Wife-dominant type) 은 모두 극소수로서, 부부중 결정권이 어느 일방에만 편중되어 있는 가정은 매우 적다. 따라서 제주도의 가족제도가 모권적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도 설득력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향을 달리하여 부부관계의 부정적 양태로 볼 수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 문제가 가족 형태와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⁶⁾ H부락 내에 이혼 경력이 1회 이상 있는 자는 남성 12사례 (초혼해체 남성의 54.5%, 전체 기혼 남성의 11.4%), 여성 28사례 (초혼해체 여성의 38.4%, 전체 기혼 여성의 19.3%)로서 총 40사례 (전체 초혼해체자의 42.1%, 전체 기혼자의 16.0%)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서 빚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이혼 경험이 있는 남성은 기혼 남성의 12.8%, 여성은 기혼 여성의 28.9%이다. 본 조사대상자 중 현재 이혼 경력자들의 이혼이 행해졌던 시기를 보면 남성은 192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여성의 경우 7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전반이 많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년대 전반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에 이를수록 다소 수그러드는 듯한 인상을 준다.⁷⁾ 이러한 현상은 육지 농촌의 경우와는 오히려 정반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결과를 가지고 1950년대 이후 이혼율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

5) 崔在錫, "한국 농촌가족의 권력구조", 『아세아여성연구』 제8집, 1969, pp.3~17.

崔在錫, "한국 도시가족의 권력구조: 서울시 가족을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14-4, 1971, pp.71~95.

6) 拙稿, "濟州島の 離・再婚 研究", 『論文集』 제22집, 제주대학교, 1986. (조사대상지: 북제주군 H부락, 조사대상: 부락 전체의 기혼자 250명중 초혼해체자 95명임).

7) 1899년 선교를 목적으로 제주도에 왔던 Mutel主敎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 합법적으로 결혼한

하다 할 수 있으나 앞으로의 이혼율이나 그 성격은 상당히 다른 측면으로 전개되리라 전망된다.

이혼이 진전되는 과정을 보면 부인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거나 가출하여 행동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에서는 과거에 보편적으로 그러했듯이 신혼초부터 친정 나들이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뿐만 아니라, 친정왕래의 이중적 생활이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생활의 유지가 싫어지면 친정에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게 되기도 한다. 이 경우 남편이 처가로 부인을 데리러 가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이미 둘 사이의 관계가 벌어져 대개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이혼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이혼으로 이어질 때도 부모나 친족이 개입해서 화해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당사자들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혼의 사유도 상대방에게 뚜렷한 단점이 있어서거나 결혼생활 지속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 사유가 있을 때도 발생되지만, 어떤 때는 특별한 사유없이 서로 상대방에게 정이 가지 않아서 헤어진 경우도 상당수 있다. 특히 여성측에서 단순히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혼생활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육지의 전통가족의 관례에 비추어 본다면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곧 결혼생활의 지속 여부가 부부간의 심리적 정신적 갈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이혼이나 어느 일방의 사별로 인한 초혼해체자들의 재혼 여부와 그 비율을 살펴보기로 하자. 초혼해체자들 중 남성은 59.1%, 여성은 43.8%가 재혼으로 이어졌다. 재혼한 이들 중 이혼남의 100%, 이혼녀의 84.6%가 재혼하였고, 사별남의 30.0%, 사별녀의 21.3%가 재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성의 재혼율이 단연 우세하지만, 여성의 재혼율도 전통가족의 관념으로 볼 때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녀 모두 사별보다는 이혼했을 때의 재혼율이 훨씬 높다. 이것은 이혼자들의 이혼 연령이 상당히 낮고, 동거기간이 짧아서 젊은 나이에 이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요즘처럼 결혼 직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신고도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혼 해체가 일어나기도 해서 그 사유, 과정, 형태 등이 매우 간단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받는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사회적 차별의식도 미약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혼자의 대부분이 재혼하는 이유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진다.

사별자의 재혼성립 여부에는 남성은 연령이 문제가 되고, 여성의 경우 경제적 측면 보다는 자녀의 유무 특히 아들의 유무라는 입장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유교적 보편주의에 근거해서라기 보다는, 정신적으로 믿고 의지할 기둥인 아들이 있을 때 굳이 재혼으로 인해 구속받기 싫어하는 제주도 여성의 강한 自意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재혼하게 되는

부부가 매우 드물었고 통행되는 결혼법은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결합되기도 하고 결합되기도 한다는 기록이 있다. (金玉姬, “濟州島 天主教의 受容展開過程”,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87, p.152 참조). 이것은 물론 외국인의 눈에 비친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어렵겠지만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유가 경제적 측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려는 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⁸⁾ 그러나 그보다는 여성들의 노동경제력이 강하고 자립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간적 온정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과거 제주도에서 첩을 두는 제도가 일반화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여성들의 강한 자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여성은 수동적으로 이혼을 당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 결행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고부관계

고부관계와 관련하여 시모와 자부가 있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시모와 자부가 주거상, 경제상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를 보면 <표 3>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⁹⁾

위의 표에 따르면 한 건물 내에서 시모와 자부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 18.1%, 한 울타리 내의 안거리와 밖거리에 거주하는 가족이 13.9%, 동일부락 내이지만 각각 다른 주택에 사는 경우가 31.6%, 다른 부락에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36.4%로 나타나고 있다.

고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경제를 전부 공동으로하여 직계가족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61가족(12.8%)이다.¹⁰⁾ 또한 취사를 공동으로 하면서 생산이나 소비생활에 있어서는 일부만 공동으로 하는 가족은 3가족(0.6%)이었는데, 한 건물 내에서 생활하면서도 취사를 분리하는 경우도(19가족, 4.0%) 있다. 이 중에는 생산·소비공동이 3가족, 일부공동 6가족, 분리는 10가족이다.

한 울타리 내에서 각각 안거리와 밖거리에 따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제공동여부는 역시 다양하다. 생산·소비·취사 모두 공동은 17가족(3.6%)에 불과하다. 취사는 공동이면서도 생산·소비는 일부만 공동인 경우가 9가족(1.9%), 분리는 2가족(0.4%)이다. 한 울타리 내의 안·밖거리에 거주하면서도 취사공동은 28가족(5.9%)뿐이다. 취사 분리의 경우에도 생산·소비를 공동으로 하는 4가족(0.8%), 일부공동 15가족(3.2%), 모두 분리는 19가족(4.0%)인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같은 건물 내에서 생활할 때와, 동일 울타리 내의 안·밖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어떤 결합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형태일 때 육지의 전통적 가족의식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유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곧 위와 같은 경우에 육지에서는 완전한 직계가족을 이루어 취사의 분리가 있을 수 없으나, 제주도에서는 취사분리(12.0%)

8) 崔在錫, 전계서(1979), p.178.

9) 拙稿, "제주도 가족의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17집, 제주대학교, 1984, p.126.

10) 서부 H부락 전체 176가족(1985)에 대한 조사에서는 직계가족이 7.4%에 불과했다. 본 조사는(조사대상지: 제주시 6개 동, 서귀포시 5개 동, 남제주군 3개리, 북제주군 6개리, 조사대상: 시모 275가족, 자부 200가족, 총 475가족) 한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데서 나타나는 차이로 보여진다.

〈표 3〉 분가상태

| 거주형태 | 경제형태 | No. | % |
|-----------------------|-----------------|-----|-------|
| 한 건물내에서 생활 | 생산·소비공동, 취사공동 | 61 | 12.8 |
| |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공동 | 6 | 1.3 |
| | 생산·소비공동, 취사분리 | 3 | 0.6 |
| |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분리 | 6 | 1.3 |
| | 생산·소비분리, 취사분리 | 10 | 2.1 |
| | 소 계 | 86 | 18.1 |
| 한 울타리 내의 안·밖거리에서 생활 | 생산·소비공동, 취사공동 | 17 | 3.6 |
| |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공동 | 9 | 1.9 |
| | 생산·소비분리, 취사공동 | 2 | 0.4 |
| | 생산·소비공동, 취사분리 | 4 | 0.8 |
| |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분리 | 15 | 3.2 |
| | 생산·소비분리, 취사분리 | 19 | 4.0 |
| | 소 계 | 66 | 13.9 |
| 동일부락 내의 다른 주택에 떨어져 생활 | 생산·소비공동, 취사분리 | 6 | 1.3 |
| |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분리 | 21 | 4.4 |
| | 생산·소비분리, 취사분리 | 123 | 25.9 |
| | 소 계 | 150 | 31.6 |
| 타부락으로 멀리 떨어진 집 | 생산·소비공동, 취사분리 | 6 | 1.3 |
| |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분리 | 13 | 2.7 |
| | 생산·소비분리, 취사분리 | 154 | 32.4 |
| | 소 계 | 173 | 36.4 |
| | 총 계 | 475 | 100.0 |

에서는 완전한 직계가족을 이루어 취사의 분리가 있을 수 없으나, 제주도에서는 취사분리(12.0%)가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안·밖거리에서 시모와 자부 두 단위의 가족이 살림하게 되는 경우 건물의 규모가 큰 안거리에 누가 거주하게 되는가 하는 점인데, 자부가 사용하는 경우가 시모보다 많다.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세대의 우선 원칙보다는 가구원의 규모가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즉 가족주기(Family life cycle)별로 볼 때 축소기에 처해 있는 시모의 가족이 안거리인 큰채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확대기에 있는 자부가족이 사용하는 것이 제주도민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서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결혼과 동시에 독립적인棟(채)에 거주하고 그에 딸린 각각의 고향을 지니므로써 처

음부터 별개의 경제권과 주부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생활공간과 경제적 독립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은 대등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기거위치의 이동은 권력의 이동과는 상관이 없다. 즉 가계계승이나 주부권의 양도에 따른 이동이 아닌 가족원의 변화(수의 증감)에 의한다.¹¹⁾ 그러므로 비록 시모가 작은 채로 옮긴다고 해도 권위상 문제에 어떤 변화가 초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부부가족 제도는 육지 전통가족에서의 '안방 물림'과 같은 절차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모는 어디까지나 시모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또 공경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고부간의 갈등정도에 있어 타지역¹²⁾에 비하면 불만 강도의 수치가 극히 낮아 서로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직계가족의 구조상 거의 필연적으로 개재하게 되는 고부간의 갈등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갈등 정도가 약화되어 있을 뿐이지 갈등이 전혀 없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분가의식에 의해 부부가족제를 취하는 데서 직계가족제에 비해 갈등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그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지, 나뉠대로의 갈등은 서로간에 갖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독특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의 가족구조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한국가족의 범주 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Ⅲ. 의식구조

1. 개인의식과 가족공동체 의식

가족의 성격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 여성의 특질이 육지부의 전통사회는 물론 육지 농촌의 여성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과, 가족에 의해서 개인의식이 형성되어 그것이 사회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런 전제를 토대로 해서 개인의식과 가족공동체의식 그리고 여성의 특질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의식과 가족공동체의식을 보기로 하자.

가족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고 그러한 가족들이 다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가족공동체는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집단이다. 이는 곧, 개인의식을 근간으로 가족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나아가 사회의식으로 확산됨을 의미한다.

조선사회의 사대부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그 뿌리가 되었던 중세적 보편주의는 개인에게는孝

11) 김혜숙·김행신, "가족구조와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 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논문집」 제33집, 제주대학교, 1991, p.397.

12) 柳嘉孝, "한국 도시가족의 고부갈등의 실태와 전망", 서울대 석사논문, 1976, p.35.
李敬愛,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0, p.42.

를 통하여, 가족에게는 이 효를 확장시켜 가족주의를 낳게 하여 왔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 가족주의는 상당한 기간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로 작용하여 가족공동체 문화의 특색을 만들어 내었고, 나아가 한국인의 의식구조 형성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여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육지부와 같이 주자주의적 세계관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또한 전통사회에서 보이는 그러한 의식구조와는 그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조나 성격에 있어서도 유교적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그대로이다. 그러나 지역적 조건이 육지에 비해 여러 가지 고유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제주도가 완전히 배타적이며 봉쇄된 문화형태를 형성해 왔다고 고집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에는 유교사상의 여파가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이며 지나친 독단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영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작용했거나 또는 유교원리가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변형되었거나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주도는 오랜 기간동안 부부가족제를 선호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장남의 경우도 혼인하면 대부분 분가하게 되어 철저한 자립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분가주의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세대나 자세대 모두 이를 당연하게 수용하려 한다. 이 분가의식의 저변에는 모든 사고와 행위의 단위가 '家'로 집약되는 전통사회의 가족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의식이 작용한다고 보아진다.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있어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려는 의식은 분가주의 이외에도 가족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제주도에 1인가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결국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한 개인의 자기정체성과 독립성은 물론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되는 근면성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혼과 재혼율이 높다는 것도 바로 가족공동체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개인의식이 우선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전통가족의 경우라면 이혼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때 당사자들의 의지나 결정권 보다는 부모세대의 의지가 보다 강하게 작용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친정에서는 일단 출가의인이 되고 시댁에 종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전혀 소속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문이라는 집단에 대한 체면의식 때문에도 감히 그런 행동을 결행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제주도에서도 출가의인의 관념이 존속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희박하며, 부모와 친족의 통제나 간섭 없이도 자신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많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혼의 사유가 뚜렷하지 않아 보이는 이혼녀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남자가 너무 착해서'(곧, 남성으로서의 박력이 없어서)라든가, '웬지 정이 가지 않아서'등 너무나 의외의 대답이 나오기도 한다. 가문이라는 가족공동체로서의 집단의식 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중요시 하는 개인의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가족의식은 강한 가부장권에 의해 父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행사되어 子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관례이다. 곧, 부에서 자에게로의 수직적·종속적 권위구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위구조하에서 여성이 설 수 있는 자리는 그만큼 축소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가족공동체 의식이 강요되고 유지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가족은 부부간에 수평적·평등적 구조를 이루어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이 점도 가족공동체로서의 의식보다는 개인의식이 우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부모의 경우 연로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주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독립하려 하며, 심지어 노동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취사가 가능한 대로 생활하려 한다. 그러다가 그나마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야 자식의 부양을 받게 된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식들에게 구속을 주는 것도 바라지 않지만, 반대로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나 간섭을 받기도 꺼리는 것이다. 연로한 부모세대의 이와 같은 강한 독립정신을 고수하려는 일은 때로는 자식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는 혼자 사는 노모가 혹시 실수하여 화재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또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망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식의 부양을 받음에 있어서도 장남 우선의식이 작용하기는 하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조사대상 부락에서 장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남이나 딸의 부양을 받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¹³⁾

가족공동체 의식보다는 이러한 개인의식이 우선시 되는 경향은 고부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 울타리 내의 안·밖거리에 거주하면서 부세대나 자세대가 서로 농번기의 바쁜 시기에는 시모가 마당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며느리는 자신의 작업을 위해 그냥 지나치는 일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일을 거들어 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섭섭해 하거나, 도와 주지 못해서 며느리가 미안해 하는 일이 거의 없이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같은 부락 내이지만 가옥이 떨어져 생활할 때, 시모가 자녀의 집에 들러도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필요한 서너 마디의 대화를 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제주도민이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무심히 넘기겠지만, 육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눈에 상당히 거슬러 보이게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가사운영권에 있어서도 자녀들의 살림이 '촌살림'이 되고, 시모에게 노동력과 경제력이 있는 한 서로의 생활 영역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없이 제각기 수행해 나간다. 이러한 개인의식은 시모 자신도 전통가족에서와 같은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약하기 때문에 갈등의 정도 또한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또한 그들대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일

13) 金兌玄, "제주도의 노인생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18-1, 1980, p.101. 노부부가 독립해서 거주하다가 아주 노쇠하여 노동력이 없어 자녀와 합가할 때 반드시 장남이어야 한다고 보다는 능력있는 자녀가 모시게 된다고 조사 보고했다.

뿐이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녀들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큰 불효를 저지르는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부세대나 부락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부모의 생신을 지나치게 크게 마련한다든지, 선물을 자주 드리는 일까지도 살림을 규모있게 꾸려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마저 있어 근본적으로 사치를 싫어하는 근검의식이 체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의 살림의 규모가 커지고, 부모가족이 축소되면 가옥 규모가 큰 안채를 내주는 것은, 세대를 우선하지 않으려는 제주인들의 합리적이고 실리적이며 현실지향적인 의식구조의 반영인 것이다.

친족이나 부락 내외의 결혼 등 큰 일이 생기게 될 때, 부조자나 부조단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남편이나 부인, 부모나 자녀들이 각각 개인 명의로 따로 부조를 하게 되며 받는 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家'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부조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식은 결국 제주인의 자기 정체성과 자주성, 자립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면 상대적으로는 폐쇄성과 배타성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2. 여성의 특징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있으면서 火山島라고 하는 지극히 불리한 자연환경은 역사적으로 본도인들의 성격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판단된다. 환경적 조건을 어떻게든 극복해 내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제주인들에게는 남녀를 막론하고 기력이 남아있었던 노동에 의지해야만 했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여성의 역할도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요청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증대되고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七去之惡'이라든가 '남녀칠세 부동석'과 같은 주자주의적인 원리가 강하게 작용할 입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마련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지형성 대규모의 집약농업 형태가 아니라 田作農業을 위주로 하는 자연적 조건에서는 여성의 섬세한 노동력이 오히려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심지어 잠수가족이라 하더라도 농사에 필요한 여성의 몫을 모두 감당하면서 물질을 하는 이중의 역할이 상례화되어 있으며, 농사철임에도 그것을 내버려 둔 채 바다에 나가는 일은 거의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기여는 그 역할에 걸맞게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뛰어난 노동경제력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격적 특징면에서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기질을 형성하게 하여 그들 자신의 삶이나 가족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부부간의 권력구조에 있어 서로의 결정권이 거의 대등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부부관계의 저변에 남녀 평등의식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이혼과 재혼율이 높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三從之道를 따르는 것을 하나의 숙명처럼 생각하는 전통사회의 여성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느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성들의 노동경제력은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독립성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하는 것

이라 생각된다.

이혼으로 연결되는 사유를 살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유로써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곧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이 대체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三婚·四婚의 예가 조사 보고되는 것도 여성들이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이런 점에서 가문을 위해 이른바 '귀떨어 3년, 눈떨어 3년, 병어리 3년'으로 시집살이를 해야 했던 전통사회 여성의 특질과, 그보다는 개인의식이 앞서서 제주도 여성의 특질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체적 삶의 의지를 자신에게 두려는 여성의 자의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강한 자의식은 그들이 젊은 시절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고령으로서 1인 가족이 된 노인 여성들에게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묻게되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육지의 경우처럼 경제문제나 자녀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육체적 불편함이나 괴로움 등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자의식이 발로라 생각된다.

그러면 여성들이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활기있게 영위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서 제주도 남성들의 삶은 어떠한가. 사실 제주도 남성의 일반적 특성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할 때 그 특징적 모습이 확연하게 머리 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제주도의 여성들을 두고 '금점 절약하며, 강한 노동경제력'이라는 의미가 떠올려지는 것과 크게 대조되는 점이라 생각된다. 남성들은 집에서 애기나 본드든가, 제주도는 母權社會라는 등 실제로 남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려는 인류학자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¹⁴⁾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전통사회의 막강한 가부장권에 비해 핵가족을 취하는 제주도의 경우 남성이 가족 내에서 갖는 권위(Authority)나 권력(Power)이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지위와 역할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일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진다. 또 하나의 요인은 육지 여성에 비해서 강한 생활력을 갖고 있는 제주도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 사이의 落差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제주도의 가족이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자율형에 보다 가깝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여성이 활동적이고 또 그 노동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거칠고 힘겨운 일은 역시 남성들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의사결정권에 있어서도 대외적인 문제라든가 농사 등 전문성이 요청되는 일은 주로 남성들의 결정사항이 되며, 여성들은 가사라든가 여성자신의 문제에 보다 결정권이 많은 것이다. 재산매매 등 주요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동논의를 하면서도 남편의 결정권이 다소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母中心의 이란든가 母權家族 또는 남성은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등의 논의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되었거나 실제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데서 나온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들의 능동적인 삶의 자세에 비한다면, 사실 남성들은 비교적 수동적임을 나타내 주

14) 泉靖一, 「제주도」, 동경대학출판회, 1966.

趙惠貞,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상복 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2.

는 일면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결심하고 그를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되었다. 여성이 친정으로 가버렸을 때 남자가 데리러 가는 경우보다는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혼으로 굳어지는 사례가 많은 점에서도 그렇다. 여성은 이혼을 주도하고 결행하는 주체적 능동적 입장이고, 오히려 남성이 이혼을 당하는 수동적 입장인 것이다. 때로는 남편의 부정 때문에 이혼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때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육지의 전통가족에서라면 남성이 아무리 바람을 피우거나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여성은 고통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심할 경우에는 남편의 그러한 부정행위도 오히려 여성에게 결함이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보려는 시각도 있으며, 또한 남편의 행위에 대해 절대로 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여성은 이처럼 인내하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실령 남편이 취첩을 하고, 본처가 그대로 살림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전통가족의 조강지처와 동일한 의식에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부인의 잠재의식 속에는 남편을 조건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족내에서 남편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려는 측면이 엄존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겨진다.¹⁵⁾ 이런 경우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핵심인물은 여성이 되고, 남편은 부수적 주변인물로 인식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므로 설사 가족 해체는 되지 않더라도 이전과 같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여성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식이 내면에 깔려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가족이 '家'보다는 개인을 단위로 하면서 부부가족의 형태를 취하는 데서 핵가족적인 제반 특징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 가족의 보편적 범주내에 속한 것이다. 육지의 전통가족에서 보이는 수많은 유교적 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부계의 성을 따르든지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남우선 의식 등은 주자학적 원리의 강한 지배하에 속박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도 남성들의 특질은 유교 원리에 의해 남성우위 의식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핵가족제를 취하는 데서 오는 가부장권의 일부를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양도됨으로써 현실적 경제적으로는 남성의 세력이 전통가족만큼 강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생기는 권위와 나약성이 혼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IV. 결 론

인간이 가정에서 태어나 그 성장과정에 사회화되면서 의식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15) 趙惠貞, 전계논문, p.161. 남자들이 작은 각시를 취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도피해 버리는 생활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가족의 성격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주인의 의식구조를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 보았다. 이상에서 논의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의 가족은 자연적 역사적 제 환경에 의해 철저한 분가의식이 작용하여 과거부터 부부가족의 형태를 취해 왔다. 차남 이하는 물론 장남이라도 결혼하면 즉시 '술을 갈라' 분가를 하여 부모와 독립된 경제생활을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기력이 있는 한 자녀들의 부양을 원하지 않아 고령임에도 취사를 분리하여 스스로 꾸려 나간다. 따라서 제주도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분가의식과, 타인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독립정신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부부관계, 고부관계, 여성들의 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즉, 전통가족에서와 같은 수직적 종속적 관계구조가 아니라 性差가 심하지 않고 세대의 원리가 강하지 않은 수평적 평등적 관계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모든 면에서 家를 단위로, 가족주의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육지부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을 단위로한 개인의식이 생활양식 전반에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식은 또한 독립성과 자주성을 발달시키고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점이 매우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외부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폐쇄성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셋째 개인의식은 또한 전통가족의 여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여성 특질을 형성하여, 그 정신이 가정생활에 그대로 반영되기도 한다. 부모나 남편, 자녀들에게 의지해야만 했던 전통사회의 여성들과는 달리, 최후까지 노동을 하고 독립생활을 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려 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의식 속에서는 중세적 보편주의 세계관에 의해 남성 우월의식이 존재하나 실제적으로는 핵가족을 취함에 따라 가부장권이 강하지 못하므로 현실적인 힘(power)이 표현되지 못한다. 부부간의 평등의식이 때로는 여성들의 강인한 노동경제력에 의해 제주도의 남성들을 수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金榮敦,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변시민박사회잡기념논문집」, 1978.
- 金玉姬, “濟州島 天主教의 受容展開過程”,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7.
- 金兌玄, “濟州島의 老人生活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8-1, 1980.3.
- 金惠淑, “夫婦間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1) - 제주도 농·어촌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0-3, 1982.
- , “濟州島 家族의 姑婦關係에 대한 研究”, 「論文集」 제17집, 제주대학교, 1984.
- , “濟州島의 離·再婚 研究”, 「論文集」 제22집, 제주대학교, 1986.
- , “濟州島의 一人家族 研究”, 「論文集」 제20집, 제주대학교, 1985.

- , “濟州市 家庭의 夫婦間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농·어촌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83.
- 김혜숙·김행신, “가족구조와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논문집」 제33집, 제주대학교, 1991.
- 朴在煥, “人間 相互作用에 관한 濟州島民의 社會意識”, 「논문집」 제9집, 제주대학교, 1977.
- 石宙明, 「濟州島 隨筆」, 보진재, 1968.
- 松本誠一·秦思淑譯, “濟州島家族의 檢討 -世代規模의 東西差-”, 「탐라문화」 제11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1.
- 申幸澈, “濟州島民의 社會·文化意識上的 傳統性”, 「논문집」 제11집, 제주대학교, 1979.
- 庾喆仁, “日常生活과 島嶼性: 濟州島 文化에 대한 認知人類學的 接近”, 「제주도연구」, 창간호, 제주도연구회, 1984.
- 李光奎,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 社會學的 側面”, 「탐라문화」 제3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4.
- 李昌基, “濟州島 家口の 크기”,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7.
- 趙文富의 4인, 「濟州道民의 意識構造 調查研究」, 제주대 통일안보연구소, 제주도, 1979.
- 趙惠貞, “濟州道 海女社會 研究”, 「한국인과 한국문화」(한상복 편), 심설당, 1982.
- ,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 泉靖一, 「濟州島」, 동경대학교 출판부, 1966.
-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 일지사, 1979.
- ,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 개문사, 1976.
- 玄容駿, “濟州島의 基層文化”, 「문화인류학」, 제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5.
- 玄平孝의 7인, “耽羅精神探究”, 「논문집」 제11집, 제주대학교, 1979.

Summary

Cheju Islanders' Construction of Consciousness Through
the Characteristic of a Family
— Centering on Women —

Kim Hye-sook

The characteristic of a family was partly grasped in condition that a man was born at home and that he socialized and his construction of consciousness formed in the process of his growth. The Cheju islanders' construction of consciousness, especially that of women's was treated in this report.

Families in this island have been nuclear families in the operation of absolute consciousness of branch family by all the natural and historical situations. When all the sons get married, they move away from their parents and live independent lives. Parents who don't need their son's support, if they have living power, and though in old age, live by themselves. So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family in this island is the consciousness of branch family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These qualities can be show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husband and wife,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in-law and in the women's lives, etc. That is, families in this island have horizontal and equal relationship constructions on which sexual differences are not serious and the generation principle is not strong, not the construction of vertical and subordinate relation in traditional family.

On the basis of these qualities, individual consciousness in the individual unit spreads through out the ways of living differently from familism on the mainland who think and act as a family unit. The individual consciousness develops independence and autonomy and presents a practical and logical attitude. According to circumstances, those can be expressed as selfish and exclusively closed qualities.

The individual consciousness forms women's quality essential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women and the spirit occurs in home life. Differently from the women of the traditional society who had to depend on parents, husbands and sons, present women on Cheju strive to live independent lives and don't want be subordinated to anyone. Considering this, though men have feeling of sexual superiority based on the tenets of Confucianism

they can't express actual power because patriarchal power is not powerful in the nuclear family. The equality consciousness of man and wife sometimes makes men in this island seem passive due to women's economic power of labor.